

강진군 2025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4년 연속 수상

전남도 평가 결과 귀농귀촌 성공 방정식 4년 연속 증명했다 디지털 교육·활발한 소통·공모사업 지속가능한 귀농모델 선도

강진군이 '2025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귀농정책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교육 강화, 지역 민과의 긴밀한 소통,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귀농귀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다.

전라남도는 매년 도내 시·군의 귀농어귀촌 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귀농어귀촌 단체와의 소통, 중앙-도-시군 간 협업 실적이 중점 항목으로 반영됐다.

강진군은 이 부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

했다.

강진군은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귀농귀촌 종합상담 시스템'과 '온라인 귀농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어귀촌인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민과의 관계 형성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소통 중심의 접근은 지역 공동체와 귀농인의 융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영농기술 교육, 농업 창업 지원,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귀농 정책은 물론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현장 기반의 정착 유도 프로그램이 정례화되며 귀농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외부 재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한 '귀농

귀촌 박람회' 및 '찾아가는 귀농정책 설명회'는 도시민에게 강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로 따라 높은 상담률과 재방문율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진/손정설 기자



곡성군,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서 "모험가들의 도시, 곡성" 관광코스 개발로

곡성군이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험가들의 도시, 곡성' 주제로 개발한 관광코스를 통해 체험·모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 총 4개의 힐링과 모험 관광 코스를 개발해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026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코스 팸투어 운영과 콘텐츠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 모험·체험형 관광코스 4종 개발...곡성이 가진 '자연의 힘' 담아

곡성군이 올해 선보인 4개의 관광코스는 곡성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콘텐츠는 ▲섬진강대황강 글로벌액티비티 쉼터 ▲동화 속 역사이팅 쉼터 ▲동악산 트레일 러닝 쉼터 ▲설산 트레일 러닝 쉼터 코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곡성 강빛마을 모험시설, 질라인, 패러글라이딩 등은 모험심과 스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표 모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또한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연계곡 코스는 개방감 있는 풍경과 안전한 주행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미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으며, 트레일링 코스는 힐링·여유·감성을 모두 담아 사계절 관광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 팸투어, "곡성의 모험관광 잠재력 확인한 자리"

곡성군은 개발된 4개 코스 중 1개 코스를 선정해 최근 팸투어를 추진했다. 참가자들은 집라인 및 모험시설의 체험, 섬진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연계곡 코스의 뛰어난 조망, 힐링 산책길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곡성은 체험형 관광이 가지는 재미와 힐링 요소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11월 팸투어는 곡성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반응을 토대로 체험 프로그램 품질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진도군, 골목에서 피어난 예술 '옥주골창작소 입주 작가 성과공유회'

진도군은 옥주골창작소에서 '제4회 옥주골창작소 입주 작가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발표와 전시, 영상 상영,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 예술 활동으로, 총 13명(8팀)의 입주 작가가 참여해, 한 해 동안의 창작 성과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작가들은 2025년 옥주골창작소의 운영 주제인 '골목'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 공

간과 기억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성과 발표는 관객과 함께하는 열린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작가들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이 공유됐다.

작가들은 골목이라는 일상 공간이 지닌 삶과 기억을 회화,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해 표현했다.

전시장에는 진도의 바다를 재해석한 '푸른 미로와 파동', 옥주골창작소의 시간

을 기록한 '창작 기록 영상', '차마 골목길의 풍경소리', '사람이 떠나간 자리의 골목에서', '골목 고양이'의 시선을 따라 만들어진 염서와 벽화가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손바느질로 기억을 잇는 골목'과 '예향 진도의 시, 서, 화를 바탕으로 '숙대'에 부는 바람을 시작으로 표현한 작품, '골목을 춤으로 형상화한 '골목마다 춤꽃이 활짝' 등 다양한 예술적 시도도 이어

졌다.

또한, 옥주골창작소 1층에서는 입주 작가들의 작품과 예술 상품, 기념품을 판매하는 예술 가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문화 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역할도 확인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옥주골창작소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문화로 소통하는 핵심 공간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내년 사는 곳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영암군, 돌봄신청자 재가거주율 80% 달성 등 실행계획 의결

계하는 영암형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 판정, 지원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돌봄의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묶어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운영하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는 영암군 통합지원협의

체는 행정·보건·의료·복지·주거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평가 △시책 자문·조정 △관계기관 연계·협력 △민·관 자원 발굴 및 협업 강화 등을 맡는다.

이날 협의체 부위원장으로 이삼행 영암지역자활센터장이, 위원으로 김문수 영

암군의사회장, 장승희 동아보건대 교수 등이 위촉을 받았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영암군의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 최종 심의·의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의결된 실행계획에는 '통합돌봄 신청자 재가 거주율 80% 이상 달성' 등 성과와 목표와 노인·장애인·퇴원환자 우선 지원 방향 등이 담겼다.

영암/김희선 기자

구례군, 기생충 중점관리사업 성과 가시화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남 구례군은 2025년 기생충 중점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간흡충 양성률이 2.6%로 전년도 5.3% 대비 2.7%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간흡충 감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간흡충 치료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매년 2,000명씩 총 6,00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 2년간 총 4,183명을 검사한 결과, 간흡충 양성자 164명과 장흡충 양성자 208명을 발견했으며, 이들 모두에게 무료로 치료제를 처방·투약했다. 2024년에는 신규 참여자와 민물어패류 취급업소 종사자, 직장인을 우선적으로 검사한

결과 기생충 감염률이 5.3%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도 치료 효과로 인해 감염률이 2.6%로 전년도 대비 2.7%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간흡충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간흡충에 감염될 경우 만성 담도 질환과 간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 시 담도암이나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섭취하는 행위는 간흡충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민물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또한 민물어패류를 손질한 식기류는 재사용을 피하고,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 소독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화순군, 체육시설 재난 대비 숙달 훈련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5일 하니 읍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체육시설 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5년 재난 대응 숙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이용객이 동시에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대형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과 신속한 대피, 비상 대응 체계 전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순군, 체육시설 재난 대비 숙달 훈련 진행

훈련에는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화재 상황 전파 ▲전시 시설 대피 유도 ▲피난 동선 확인 ▲인원 점검 ▲심폐소생술 실시 ▲현장 통제 및

강령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화기 및 옥내소화선 사용 훈련을 포함한 실전형 훈련을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한편, 화순군은 체육시설에 대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난 대응훈련 및 안전 점검을 진행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 같을 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및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고 싶을 때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이들
우어도 보는 것.
만드는 거려할 것
잠시
읽어주고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